

시끌벅적 e-스타



상큼 발랄 여대생 응원 '인기 폭발'

상큼 발랄한 여대생 응원단의 올림픽 응원 UCC 동영상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화여대 응원단 '파이루스'가 올림픽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2박3일에 걸쳐 전국을 돌며 역동적인 안무를 선보였다. 동영상은 파이루스 응원단 6명이 지난달 30일부터 8월1일까지 2박3일 동안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명동, 서해대교, 해남 땅끝마을, 보성 녹차밭, 부산 광안대교, 경주 안압지 및 중문 관광단지, 포항제철소, 정동진 등 국내 명소 10곳에서 벌인 응원전을 담았다. 이들은 각 명소에서 펼친 특유의 응원 율동을 영상으로 찍고 여기에 노브레인이 부른 '아리랑 목동'에 맞춰 같은 응원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배경이 바뀌어도 안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특히 UCC 마지막 부분에는 일반적인 엔딩 크레딧 대신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선수들의 참가 종목과 선수 이름...

오늘의 유머

■깜짝이야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러 간 여자가 물건을 고르다가 지갑을 핸드백 진열대 위에 잠깐 놓아 두었다. 지갑을 다시 집으려고 하자 다른 사람이 먼저 지갑을 집어 들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 지갑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먼저 봤는 데요!" ■아내의 질투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자기 결혼 전에 사귀던 여자 있었어? 솔직히 말해봐, 응?" "응, 있었어." "정말? 사랑했어?" "응, 뜨겁게 사랑했어." "뽀뽀도 해봤어?" "해봤지." 드디어 열이 받은 아내가 외쳤다. "지금도 그 여자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첫사랑인데..." 완전히 열이 오른 아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럼 그전하고 결혼하지 그랬어... 응?"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전하고 결혼했잖아." ■중요한 차이 현명한 남자 : 여자 생일 기억하고 그녀의 나이는 기억하지 않는 남자. 멍청한 남자 : 여자 나이만 기억하고 그녀의 생일은 매번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건강증 건강증이 심한 남자가 자기 어머니의 생일을 잊지 않고 때맞춰 선물을 보냈다고 친구...

에게 자랑했다. 친구가 말했다. "너의 어머니는 누가 선물 보낸 건지 모르실걸." 그러자 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가 보낸 줄 아실 거야. 깜빡 잊고 선물에 내 이름을 쓰지 않았거든." ■다투고 난 뒤 다들 때마다 혼자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는 아내가 있었다. 하루는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갔다.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생각한 남편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봐! 할 말이 있으면 큰 소리로 하라고." 그러자 아내가 천천히 자기가 한 말을 큰 소리로 반복했다. "밀가루 한 컵, 계란 두 개, 350도에서 20분 간 구울 것." ■초보자 새로 서핑용 보드를 장만한 남자가 파도를 향해 급히 달려갔다. 그때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당신은 신출내기 서퍼군요. 물 밖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방송을 들은 남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되돌아 나와 어떻게 초보자인 줄 알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구조원이 대답했다. "그게야 간단하죠. 당신은 잠수복을 앞뒤로 가게 입고 있거든요." ■참새 시리즈 참새 둘이 전기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포수가 그 중 한 마리를 맞춰 떨어뜨렸다. 총알을 맞은 참새가 주라하며 하는 말, A참새 "나 잊지 말고 바람피면 안돼~" B참새 "웃기지마! 니가 세컨드야!"

리빙 센스
고기 요리의 지혜
■냉동 고기 쉽게 해동해요
냉동실의 고기를 꺼내어 요리하려 하면 해동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잘못 해동하면 영양이 파괴된다.
영양이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쉽게 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알루미늄 냄비를 밑에 뒤집어 놓고 냄비의 바닥에 고기를 올려 놓는다. 그 후 또다른 알루미늄 냄비를 고기 위에 바로 올려 놓고 약 10분 정도 가열하면 고기가 완전히 해동돼 요리하기에 좋다.
■녹말 풀면 고기가 식은 후에도 윤기
맛있는 불고기도 식으면 기름이 엉겨서 불품이 없고 맛도 떨어진다. 고기가 다 익은 다음 녹말 1큰술을 물에 풀어서 넣으면 식은 후에도 윤기가 나고 맛도 있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8월 21일(음 7월 21일 癸巳)
36년생 고소를 당하는 수도 있다. 48년생 처음부터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 쪽으로 모택하라. 60년생 있는 것도 없는 듯이 조심하라. 72년생 모든 곳에 정성을 쏟으라. 84년생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형상이다.
37년생 점진적인 활동이 확실한 결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49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다. 61년생 중점을 잃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73년생 매사에 성공하는 형상이다. 85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라.
38년생 투자는 내일로 미루어야 큰 득이 온다. 50년생 모든 일에 신중 하라. 62년생 불연이런 애인과 이별할 수도 있다. 74년생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서로서 존중하라.
39년생 오랜만에 좋은 협조자를 얻고 금진한다. 51년생 흥이 변하여 같이 된다. 63년생 관과, 재와, 탕과가 우려된다. 75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손이 줄어든다.
40년생 직업과 재물이 버려져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52년생 부부사이에 화안이 필요하다. 64년생 어려움은 없으나 지루하다. 76년생 흉과 복이 교차하고 중중하니 기도하고 안정을 취하라.
41년생 획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니 금상첨마다. 53년생 현재의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방자취를 다시 놓아보라. 65년생 절대속수 절대 실리를 찾아야한다. 77년생 오늘을 평안하다.
42년생 생각하지 않은 협조자가 자라하니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54년생 도둑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66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78년생 오늘은 눈을 감고 지나라.
43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으니 실망 말고 진행하라. 55년생 용기와 희망으로 추진하면 득에도 무난하다. 67년생 외형은 가능한 방법으로 실리를 찾아서 속소해야 풍요로아.
44년생 희망의 진행은 계속 된다. 56년생 문서를 쥐고 있는 형상으로 재사가 순조롭다. 68년생 큰 계획으로 임해서 어려움은 없으나 확을 얻으라. 80년생 모든 일에 경이로운 진취가 있으리라.
45년생 미려서 신중함 체면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살펴보라. 57년생 고갱이 우려된다. 69년생 타인의 모략 사기를 만날 우려가 많으니 조심이 절실하다. 81년생 많은 조심이 필요하다.
46년생 지난 과거에 얽매지 말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라. 58년생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라. 70년생 지난 문서를 버리고 새 문서를 얻는다. 82년생 좋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먹어라.
47년생 외형속소 가나 실속 재점점 하라. 59년생 서로서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다. 71년생 내일을 위해서 인내심이 좋으리라. 83년생 하는 일에 감격을 만나니 가족에 협조를 하면 득이다.

제17회 광일승
개인전 준결승 1국 4보(43~65)
아까운 교환
개인은 단체전의 각조 1위 3명과 외일드카드로 선발된 1명 등 총 4명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단체전은 환관을 지더라도 동료들의 활약에 따라 우승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전은 지는 순간 탈락하기 때문에 그만큼 박진감과 긴장감이 넘친다.
백 44는 위 아래의 흑을 분리시키는 공격적인 착점이며 흑 45부터 50까지는 평범하면서도 무난한 필투기에 예정된 진행이었다.
백 48부터 57까지 교환해버린 것은 3·삼에 침입하는 수를 없애 조금

바둑 소식
응창기 대회 바둑판 360만원
제4회응창기(2001년) 준결승전에서 이창후·위빈 9단이 썼던 바둑판이 360만원에 팔렸다. 20일 서울에서 열린 지지옥션 바둑명품 경매행사에서 다양한 바둑 용품의 주인이 가려졌다.
이번 경매행사는 국내 유명 프로기사의 서명바둑판·바둑통 및 바둑알, 이민진 5단·차민수 4단과의 지도대국, 글씨, 서적, 동판 등 총 54점의 경매물품이 매물로 나와 팔렸다.
반면 시자가 1억2천만원으로 최고 금액에 나온 현목 목상감 바둑판 '미죽' 등은 유찰됐다. 이번 경매 행사의 수익금은 바둑 꿈나무 육성에 쓰인다.

더마플라스트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더마플라스트
제품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129>
Same place
여전히 똑같은 곳이야
A : where does John live now?
B : Same place
A : Are you kidding?
Isn't it time john moved out?
B : Try telling him that.
A : 존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지?
B : 같은 곳에 살지.
A : 농담하고 있는 거지?
존은 이사할 때도 됐잖아?
B : 한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봐.
* move out : 이사 가다
* try ~ing = 한번 ~해 보다.
* 자네 부인은 잔소리하는 것, 그만둘 때도 되었는데.
= Isn't time your wife stopped nagging John so much?

오하오우 니혼고 <1129>
作り直(なお)しということですか。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A : 今回の新製品(しんせいひん), 検査(けんさ)に通らなかったそうですね。
B : ええ、一部(いちぶ), 仕様(しよう)どおりに作(つく)られていなかったそうですよ。
A : そうですか。じゃ、作り直(なお)しということですか。
B : ええ、そうなる可能性(かのうせい)が高いですね。
A : 이번 신제품 검사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B : 에에, 일부, 규정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A : 그렇습니까.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B : 에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今回(こんかい) : 이번
作(つく)り直(なお)し : 다시 만들다
仕様(しよう)どおりに : 규정대로

니하오 쑹구위 <206>
你几点下班?
몇 시에 퇴근해요?
A : 爸爸今天几点下班?
Bāba jīntiān jǐ diǎn xià bān?
빠빠 오늘 몇 시에 퇴근해요?
B : 6 点下班, 怎么了?
liù diǎn xià bān, zěnmě le?
리우 디안 샤 바판, 쟈먼 레?
A : 我想跟你一起吃饭。
Wǒ xiǎng gēn nǐ yìqǐ chī fàn.
와 쟈왕 겐 니 이힉 치 판.
B : 好的。
hǎo de.
하오 리.
A : 大概 今晚 几点 能 回家呢?
E 6 时能 回家?
A : 大概 几点 能 回家呢?
E 几点?
下班 [xià bān] : 퇴근하다
怎么 [zěnmě] : 왜, 어째서
起 [qǐ] : 함께, 같이

한자 이야기 <846>
莫逆之友(막역지우)
없을 막, 거스릴 역, 어조사 지, 벗 우
막역지우(莫逆之友)는 서로 거스르거나 허물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절친한 친구를 비유한다.
'장자(莊子)'는 적절한 우화(寓話)를 통하여 자연 즉 천리(天理)를 따르고 인간적 욕망을 비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우화 중에 자사(子祀)·자여(子輿)·자리(子綽)·자래(子來)라는 가공의 인물들 내세워 이상적 친구관계를 설명한 것이 있다.
자사·자여·자리·자래 네 사람이 함께 말하기를, "누가 능히 없는 것(無)으로써 머리를 삼고, 삶(生)으로써 척추를 삼고, 죽음(死)으로써 영명을 삼겠는가. 누가 생사존망(生死存亡)이 한 몸임을 알겠는가. 내 이런 사람과 벗이 되리라." 네 사람이 서로 보며 웃고 마음에 거슬리는 게 없어서 마침내 서로 벗이 되었다(莫逆於心 遂相與爲友). 그 뒤로 이들은 벗이 들고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초연한 모습을 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막역지우는 본래 천지(天地)의 참된 도를 깨달아 사물(事物)에 구애됨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들 사이의 사귀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서로 허물없는 친구 사이를 지칭하게 되었다.